

지역 매아리

정읍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정읍시보건소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 관리사와 연계,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과 위생, 산후 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 전문 건강 관리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예시, 직장가입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112,792원)의 출산가정이다.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맞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소득 유형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1주(5일)부터 최대 5주(2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다.

부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39-6126)을 방문 신청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서,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안경찰서화물차의 교통량이 많은 23번·30번 국도 일대에서 난폭운전과 과적운행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화물차 신호유반, 적재초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법규위반 행위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함께 병행 단속을 벌인다.

이공민 서장은 "안전성을 위협하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확실히 근절시켜 대형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지속가능 골목경제 활성화 꾀한다

정읍 쌍화차 거리,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11억원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정읍의 도심 속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쌍화차 거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며 "시비 5억원과 자부담 1억원을 더한 모두 11억원을 들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해 경관과 업소 내부 인테리어 개선을 비롯 가능성 쌍화차 개발과 청년 창업물, 프리마켓 운영 등의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골목 특성과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

는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그에 따른 결실이다"면서 골목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화차거리의 정음경찰서에서 정음세무서까지 이어지는 길목이다.

중앙길 350여m에 이르는 길가 양쪽에 모두 13개소의 전통찻집이 자리하고 있다. 정읍을 대표하는 아홉 곳의 명소(정읍 九景)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이 곳에서는 넉넉한 한옥재에 밝과

대추, 은행 견과류를 넣어 10시간 이상 푹 고아 쌍화차를 만든다. 시간에 따라 불씨를 달리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들여 고아낸 쌍화탕은 맛과 향이 진해 웰빙(well-being)차로 특히 인기가 높다.

곱들로 된 짬배기에 담아내는 것도 이채로운데, 묵직한 돌덩이에 담긴 뜨끈한 쌍화탕을 마시고 나면 몸이 한결 따뜻하고 개운해진다는 평이다. 가래떡 구이와 고소한 깨 과자 업소마다 다양한 주전부리도 함께 내놓기도 한다.

30년을 훌쩍 넘긴 쌍화탕 찻집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쌍화탕 찻집이 어울린 정읍은 소박하고 편안해, 정읍을 찾은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가 영농편익 도모·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고창군 영농철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 인기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 64종 415대의 다양한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가의 영농편익 도모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봄철 주요임대 농기계

인 관리기, 심경로타리, 굴삭기 등 400여대를 사전 점검정비를 완료했으며 연일 농업인들의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 64종 415대의 다양한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다.

2017년에는 1510여 농가에 4630여대의 농기계가 임대됐으며 이는 2016년 대비 200% 이상의 사용실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농기계 임대관련 문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560-8847, 560-8860)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의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불편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도심공원 여성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정읍시는 도심공원 내 여성공중 화장실 올해 13개소에 음성 인식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해에도 5개소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 바 있다.

이로써 도심 전 공원여성 공중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됐다.

안심 비상벨은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외치지만 해도 경광등이 울림과 동시에 정음경찰서 112 상황실로 자동연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안으로 벨을 누를

경우 도움이 절실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노후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사회적기업 수립 '희망나눔 일자리 우수 협력기업' 선정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수립(대표 김선호, 정읍시 총정로 52, 이하 수립)이 2018년 법무부에서 주관한 희망나눔 일자리 우수 협력기업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수립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군산교도소에서 개최한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이들에게 구직(求職) 기회를 제공했다. 또 취업 관련은 물론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생활상담도 진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선호 대표는 "의미 있는 기업으로 선정해주시 법무부와 군산교도소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립은 현대화된 묘목 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묘목을 생산, 관리하며 조립과 숭가꾸기, 조정 등을 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취약 계층에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사회 공헌도와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전북트래블마트 참가 우수 관광자원 홍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18 상반기 전북트래블마트에 참가해 '한국인의 분향, 고창'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공동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국내·외의 여행업, 마이스업, 홍보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트래블마트 상담회 전북관광 설명회, 이벤트 등이 추진됐다.

군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관광관련 업체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2018년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 생태환경 자

원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과 우수한 농특산품을 함께 홍보했다.

이울러 2018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3년 연속 선정돼 오는 10월17일 전후 5일간 개최되는 고창의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도 적극 알렸다.

군 관계자는 "전북트래블마트 참가를 통해 고창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365일 찾아오고 싶은 고창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

부안군은 갯벌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고루 갖춘 줄포만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이 교육생 오라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8주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인증 교육과정인 줄포만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줄포갯벌생태관과 줄포만 갯벌 일원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되며 갯벌에 대한 이해와 환경해설기법,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부안을 찾는 방문객과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줄포만 갯벌생태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부안군 신경철 해양수산과장은 "교육생 모두 갯벌과 생태계에 대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 2023 세계사카우트 챔버리를 찾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줄포만 탐사트 갯벌을 알리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ad includes the tex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호 | 500ml 2ea/12%, 375ml 5ea/13%'.